

경제

개별공시지가 18.6%↑

■ 稅부담 얼마나 늘까

보유세 최대 3배↑... '세금폭탄' 현실로

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평균 18.56% 오름에 따라 토지 보유에 따른 세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공시지가는 곧바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

◇전국 지가 18.56% 상승 =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전국 3천670만여 필지 가운데 단독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하고 조세부과 등에 필요한 2천548만여 필지에 대한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했다.

지가는 총액 기준으로 평균 18.56% 올랐으며 대상 필지 중 2천16만 필지(79.15%)가 상승 조정됐고, 532만여 필지(20.85%)는 비슷하거나 낮아졌다.

광주시 최고지가 총장로 광주우체국 평당 3,438만원

전남은 순천 남내동 63-3번 의류가게 평당 1,586만원

(13.67%) 등의 순이었다.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4-2로 나타났다. 파스쿠찌로 커피전문점으로 평당 값은 1억6천900만원으로 지난해 1억3천888만원보다 3천만원 가량 뛰었다.

◇광주·전남 땅값 = 광주에서 가장 비싼 땅은 동구 총장로 2가 광주우체국으로 평당 3천438만원을 기록했다.

전남에서는 순천 남내동 63-3번 의류가게로 평당 1천586만원 63-3번지 의류가게로 평당 1천586만7천원에 달했다.

조486억7천400만원, 54조258억3천만 원으로 각각 5.33%, 7.61% 상승했다.

◇보유세 최대 3배 상승 = 개별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토지 보유에 따른 세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공시지가는 곧바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보유세는 비사업용 토지일 경우 세대별 합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3억원 이하면 재산세만 내고 3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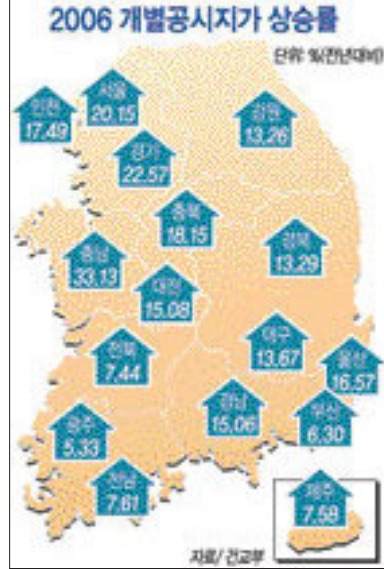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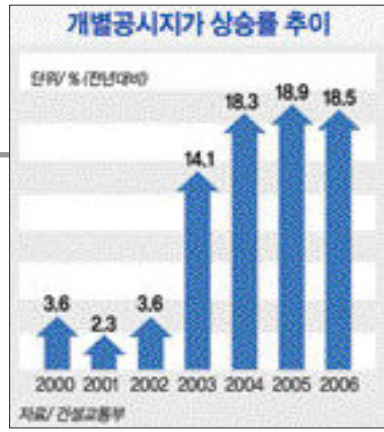
대상(사업용 토지는 40억원)이 된다. 지난해까지 6억원이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올해 3억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때 따라 올해 새로 조부세 납부 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세금이 크게 늘어난다. 나대지 등 합산과세 대상의 경우 조부세의 적용비율이 지난해 50%에서 올해 70%로 높아졌고, 재산세 적용비율이 지난해 50%에서 올해 55%로 상승한 것도 세부담이 커진 원인이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토지투자지역이 아니면 사업용 토지인 경우 늘어난다. 상승에 따른 증여세도 늘어난다.

◇부동산시장 더 '공공' = 보유세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토지시장은 더욱 침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나해 8·31대책 이후 토지 거래가 확연히 줄어든 상황에서 보유세 부담 증가는 그나마 남아 있던 매수 심리마저 사그라들게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답이 크게 늘어날까 봐 토지 매매시장이 더욱 공황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편 토지소유자는 1일부터 한달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술혁신 이노비즈 기업 4,035개

중기청, 월 평균 116개씩 인증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이노비즈(InnoBiz) 기업이 5월말 현재 4천개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청은 지난달 31일 이노비즈 자가진단을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평가를 실시, 108개 업체를 이노비즈기업으로 인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이노비즈기업수는 4천35개로 집계됐으며 월 평균 116개씩 증가하는 지금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5천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벤처제도가 다음달부터 민간투자 위주로 개편됨에 따라 신용보증재단 등의 자금지원 때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이노비즈 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노비즈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이노비즈협회 회원수도 크게 늘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들어 최근까지 지난해 전체 신규 가입업체의 70% 수준인 487개 회사가 회비를 납부하는 정회원으로 가입, 총 회원수가 1천602개를 기록하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정회원 기업만 2천개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협회측은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서 실시하는 최고 1천만원까지 사내 기술연구모임을 지원하는 소그림지원사업, 회계·법무 자문사업, 이노비즈기업 지원용 펀드 조성 등으로 인해 회원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회원수가 급증함에 따라 이노비즈협회가 혁신형 중소기업의 대표단체인 벤처협회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중소기업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벤처는 민간으로 확인기관이 바뀌지만 이노비즈는 중기청에서 인증하고 지원하는 식으로 계속 운영된다"면서 "조만간 혁신형 중소기업의 중심점이 벤처협회서 이노비즈협회로 넘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이건희 회장 "바쁘다 바빠"

외교사절·계열사 CEO 회동 등 이어 호암사상식 참가 대외 활동 본격화



이런저런 구설 속에 장기간 해외체류하다 귀국한 뒤에도 잔뜩 '몸을 낮추는' 자세를 보여왔던 이진희 삼성회장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31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다음달 1일 호암아트홀에서 열리는 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해 한명숙 총리 등 외부 인사들을 접견하고 수상자들에게 시상하는 호스트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해마다 신년하례와 '자랑스러운 삼성인상' 시상식, '삼성기술대전' 등 내부행사에 참석해 왔지만 지난해 6월 동남아 현지사업장 방문 이후에는 '삼성공화국론'과 안기부 'X파일' 사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배정을 둘러싼 논란 등 약재가 잇따르면서 내부 행사조차 참석을 삼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같은 해 9월 지방 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떠난 뒤 5개월간 미국, 일본 등지에서 체류하다 지난 2월 귀국한 뒤에도 대내외 행사에는 가급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귀국 후 삼성 주요 계열사 경영진과 국내외 사업파트너, 외교사절, 재계 대표 등을 만나면서 서서히 활동 보폭을 넓혀온 이 회장은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회의'에서 삼성의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밝히는 등 외부 행사에도 참석하기 시작했다.

이 회장은 이밖에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에 만찬을 베풀거나 친선골프대회에 이들을 초청할 계획이며 전경련 회장단 회의에도 여건이 되면 참석할 뜻을 밝혔다.

이 회장은 경영활동에도 본격적으로 나서 3월 말과 지난 9일 삼성전자, 삼성 SDI 등 전자계열사와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금융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삼성 영빈관인 승지원에서 만나 각사 경영현안과 경제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이 회장은 다음달에는 삼성물산, 제일모직 등 '독립계열사' CEO들과 만나 지역을 함께 하며 그룹 안팎의 관사를 토의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이밖에 이화수 그룹 전략기획실장(부회장) 등 참모들을 수시로 승지원이나 자택으로 불러 업무 현안 관련 보고받고 필요한 지시를 내리고 있다고 삼성측은 전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산지직송 청과 맛보세요"

지난달 31일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여성고객들이 당일 새벽 산지에서 수확한 토마토, 수박 등을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은행권, 영세업자 '돈줄죄기' 계속

음식·숙박업 등 대출 2년새 1조원 넘게 회수

영세자영업자들이 다수를 이루는 음식·숙박업에 대한 은행대출이 최근 2년새 1조원 넘게 회수되는 등 은행의 '돈줄죄기'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월말 현재 예금은행의 음식·숙박업 대출잔액은 14조2천492억원으로 지난해 3월말의 15조3천684억원에 비해 1조원 넘게 줄었다.

특히 음식·숙박업 대출잔액은 2004년 6월말 15조5천500억원을 정점으로 한 후 거의 절반이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2004년 3·4분기와 4·4분기에는 각각 1천636억원, 3천691억원의 대출잔액 감소를 기록했으며 2005년 1·4분기와 2·4분기에도 각각 3천128억원, 3천558억원의 대출잔액이 줄었다.

2005년 3·4분기에는 고작 1억원의 대출증가를 기록, 마이너스를 면하기는 했으나 4·4분기에 다시 819억원 줄었다. 올해 1·4분기에도 177억원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돈을 굴릴데가 없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과 중소기업 대출에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면서 대출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현상이다.

2002년 3월말 기준 음식·숙박업 대출잔액은 8조1천305억원에 불과했으나 이후 매분기 평균 1조원씩 대출이 급증하면서 2002년 9월말 10조원을 돌파했으며 2003년 3월말에 12조원, 9월말에는 14조원을 훌쩍 넘었다.

이처럼 은행들이 마구잡이로 대출을 확대한 후 내수경기가 악화되자 다시 대출회수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연합뉴스

중소제조업 경기 6월도 '흐림'

고유가 여파 업황전망 지수 87.2

금리인상, 유가·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요인으로 중소기업 6월에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중소기업업태 1천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해 31일 발표한 '중소기업 경기전망 조사'에 따르면 6월 중 업황전망 건강도지수(SBHI)는 87.2를 기록했다.

이는 97.0으로 집계된 지난해보다 10p 정도 하락할 수 있다. SBHI는 경기경각심지수(BSI)보다 조사항목을 좀 더 세분화해 산출해낸 지수로 100을 넘으면 경기가 전월보다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는 업체가 더 많음을, 100을 밑돌면 그 반대를 뜻한다.

기업유형별로는 벤처제조업의 SBHI는 103.3을 기록,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 반면 85.5로 조사된 일반제조업은 부진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기타운송장비(102.8), 자동차·트레일러(102.4), 사무·계산·회계용기계(100.0) 등을 제외한 전 업종의 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5월 중 업황실적 SBHI는 당초 전망(97.0)보다 낮은 81.1로 조사돼 업황이 예상보다 부진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업체들은 5월 중 경영상 애로요인(복수응답)으로 내수부진(60%)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업체간 과당경쟁(43%), 원자재가격 상승(40.9%), 인건비 상승(34.7%) 등이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씨티은행 "골드리 추가 인상 어렵다"

한국씨티은행은 한국은행이 골드리를 추가로 인상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31일 전망했다.

한국씨티은행 오석태 경제분석팀장은 이날 2006년 씨티은행 투자박람회서 '세계 및 한국 경제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환율과 유가에 대한 우려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원화 강세에 따른 경기 둔화가 점차 현실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또 원·달러 환율이 920원대에서 단기 바닥을 형성했지만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과 대기중인 달러 매도세를 감안했을 때 상승 반전은 어렵다고 전망했다.

원·달러 환율이 1개월 후 930원, 3개월 후 920원, 6개월 후 950원, 12개월 후 920원으로 920~950원의 박스권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올해 배 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해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개인 소득 증가 폭이 부진하고 저축률도 낮아 소비 회복세도 더딜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세계은행 올 글로벌 경제성장률 3.7%로 상향

세계은행은 올해 글로벌 경제성장 전망치를 3.7%로 올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아시아판이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세계은행(WB)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를 작년 11월 3.2%에서 3.7%로 높였다. 이는 작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인 3.6%를 웃도는 것이다.

세계은행은 또 신흥국가 경제 성장 전망치를 작년 5.7%에서 6.3%로 올렸고 한국과 중국 등을 포함한 동아시아·태평양 경제 성장 전망치는 8.3%로 작년 성장률인 8.8%를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세계은행은 올해 일본 경제 성장 전망치는 소비 신뢰 개선 등을 반영해 종전 1.8%에서 2.8%로 올린 바 있다. /연합뉴스

"정몽구 회장 조속히 석방해달라"

기아차 해외대리점 대표들도 탄원서 제출

현대차에 이어 기아차의 해외 대리점 대표들도 비자금 등의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의 석방을 호소하고 나섰다.

기아차는 유럽과 미주를 포함한 세계 24개국의 기아차 대리점 대표들이 최근 현대차 수사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타격을 우려하고 정몽구 회장의 조속한 석방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최근 잇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아차에 따르면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리점의 프랑크 오르트 사장은 탄원서에서 "최근 현대·기아차

사태로 기아차의 긍정적 이미지가 손상될 것을 심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기아차에 대한 딜러들의 투자가 이번 수사로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며 정 회장에 대한 석방을 호소했다.

기아차 미국딜러협회도 미국지역 640개 딜러와 2만5천명의 대리점 임직원들을 대표해 제출한 탄원서에서 "정 회장과 같은 지도자의 경영공백으로 인해 딜러들의 투자 결정도 늦어지고 있다"며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돼 기아차가 미국에서 더욱 굳건한 성장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Table with 6 columns: Company Name, Job Category, Position, Salary, Start Date, Contact Info. Lists various job openings from companies like 한국씨티은행, GM대우자동차판매, and others.

<광주지리번호 512-6210 제공>